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호 [루체 제25539호] 주체106(2017)년 1월 30일 (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높이 데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극강경계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시공로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명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후적으로 짜고치고 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완성을 위해 대중을 불어넣으시는 혁신적정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밀리도록 적극 밀어넣어주시고 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과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안의 시, 군의 녀맹원회와 노동자, 학생, 청년들의 선전선동부에서는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시공로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명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후적으로 짜고치고 있다.

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신속하게 짜고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소재지인 신의주시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작전을 총이 크게 세우고 조초부터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력적방안인 농업전선에 시 과학농사실험을 일으키고 다 수확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제시한 일군들을 정면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지나해에 우량종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무병농사를 잘 지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알뜰농사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농사작법이 펼쳐지고 있다.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당 조직들과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평범한 군중을 발굴하여 뛰어난 많은 도시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또한 1000의 과실을 모아 여러 금속광물들을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돌고대중

###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 장래를 상상할수록 좋지만 오늘도 천만민민의 가슴마다에 깊은 뜻을 새겨주고있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이다.

...  
있을수 없는 새날은 사색 한장우장 번갈 때면  
민리우에서 첫발을 트던 전우들이 나를 보내  
그때 일을 우리가 어이 잊으랴  
그때 일을 우리가 어이 잊으랴  
허리띠를 조이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 그 나날들을  
...  
이 노래를 들을수록 혁명의 전선대들의 투쟁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온다. 붉은 시대의 모험은 변함없이 그들이 우리 세대의 심장에 영원한 정서로 남아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미와 탐을 후회며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며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조국의 무장투쟁과 더불어 혁명으로 굳건히 이어지고있기 때문일것이다.

◇ 물결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이것이 바로 전선대들의 억울없는 신념이고 투쟁본래, 투쟁기쁨이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당의 사상과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영원한 전통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기량의 로동은 젊은 도인들이 여러데만 8개월은 걸려야 한다면 프락트를 자력의 힘으로 단 30여일만에 만들어냈다. 설게도면도 없고 기술과 기계설비도 부족한 속에서 부족함과 부존물들을 당지로 두드리고 골라내어 쌓아 올려서 수공업의 신예에도 주지않고 당고 기어이 프락트를 단련시킬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당의 결정지시를 온몸으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하는 투쟁정신, 투쟁기풍에 있다. 첫 골짜기와 자동차, 8m라닝밴과 3000레스, 전기기관차도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 당의 결심은 곧 전력이며 승리여는 절대적인데,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치는 단편과 시련을 강행과 돌파해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닐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세인을 놀라우게 하는 기적, 영웅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 혁명의 계승은 곧 사상과 정신의 계승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수 없다. 혁명의 전선대들이 자력자강의 전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렸다면 오늘 우리 세대는 자력자강의 전리마를 타고 내달려와 내일을 뛰어넘으며 비약해나가야 한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세력의 행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지지도로 받은 김정일동지사공적의 일군들과 총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공정의 영예를 남기지 않는 전선대 로동계급적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올해인민경제계획을 당장전기까지 무조건 완수할 불타는 결의를 내세웠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력자강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시대의 역사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사명이고 임무이다.

### 조선인민군 윤래삼소속부대에서

최근 조선인민군 윤래삼소속부대의 군인과학자들이 실리가 큰 비혁련소첨가제를 새로 연구개발하였다.

이제 개발된 비혁련소첨가제는 발열량이 2MJ/kg정도인 비혁련과 그 이상인 저열연에 대하여 정한을 견뎌 지지 않고도 휘사용이나 난방용으로도 사용할수 있게 하는 효율 높은 연소첨가제이다.

우리 군인과학자들이 의외로 실리가 큰 비혁련소첨가제 개발을 이룩한데로써 오랜 세월을 연구한 끝에 이룩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과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룩 부대에서는 무전장비에 쌓여있는 비혁련을 무전장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김원혁동무를 비롯한 군인과학자들은 부대지휘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로 현상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비혁련소첨가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장기로 바쳐왔다.

이 과정에 정철은,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군인과학자들은 우리나라에 흔한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효율 높은 비혁련소첨가제 제조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

### 대고조선투쟁들에 더 많은 통나무와 동발나무를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진을 일군 나라는 정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평안남도림업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워오는 심경마다에 발이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서 세 배의 힘으로 풀려나오도록 하였다.

혁명적투쟁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어는 평안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21일까지 1월 중달나무생산계획을 105%로 일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혁명에 지닌 숭고한 사랑정신을 깊이 각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적의 일본으로 산림관리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내며 하였다.

김영관,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국적인 통발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많은 뜻을 맡고있는 정몽성사업소장에게 내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구절절을 되새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서서 풀어나가면서 중산의 불려구를 일어나

###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워오는 심경마다에 발이안고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어는 평안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21일까지 1월 중달나무생산계획을 105%로 일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혁명에 지닌 숭고한 사랑정신을 깊이 각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적의 일본으로 산림관리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내며 하였다.

김영관,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국적인 통발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많은 뜻을 맡고있는 정몽성사업소장에게 내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구절절을 되새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서서 풀어나가면서 중산의 불려구를 일어나

### 거울철물고기잡이성과 계속 확대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수산부문에선 황금해의 새 행기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총합기업을 위하여 지난해 물고기잡이성과를 148%로 넘겨 수행한 이룩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행군에 또다시 떨쳐나서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그러하여 지난 20일까지 세 배 첫 물고기잡이계획을 130%로 넘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원혁, 김영철,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김원혁, 김영철,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 도양묘장건설 적극 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완성을 위해 대중을 불어넣으시는 혁신적정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밀리도록 적극 밀어넣어주시고 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과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안의 시, 군의 녀맹원회와 노동자, 학생, 청년들의 선전선동부에서는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시공로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명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후적으로 짜고치고 있다.

### 강원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완성을 위해 대중을 불어넣으시는 혁신적정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밀리도록 적극 밀어넣어주시고 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과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안의 시, 군의 녀맹원회와 노동자, 학생, 청년들의 선전선동부에서는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시공로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명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후적으로 짜고치고 있다.

###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완성을 위해 대중을 불어넣으시는 혁신적정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밀리도록 적극 밀어넣어주시고 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과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안의 시, 군의 녀맹원회와 노동자, 학생, 청년들의 선전선동부에서는 력원기제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평도 실종합기업소들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당정책을 널리 알리고, 선전선동부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정면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에 힘있게 불어넣으시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중시공로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명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후적으로 짜고치고 있다.

### 거울철물고기잡이성과 계속 확대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라.

「수산부문에선 황금해의 새 행기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총합기업을 위하여 지난해 물고기잡이성과를 148%로 넘겨 수행한 이룩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의 행군에 또다시 떨쳐나서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그러하여 지난 20일까지 세 배 첫 물고기잡이계획을 130%로 넘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원혁, 김영철,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김원혁, 김영철,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고기잡이성과를 110%로 넘겨 수행하고 있다.

#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위대한 태양민족의 앞날 휘황찬란하다

##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은 나라 천만군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끓어올라고 있다.

올해의 실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뵙고 싶어 달려오는 사람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 서고 있었다.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여 주체의 최고성지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 숭엄히 안겨왔다.

어머나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실세로따라 평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따듯이 축복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라는 숭엄한 감정이 차우쳐올랐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격동의 우리 시대에 위대한 태양민족의 력사가 어떻게 출구처로 뜨르고 있는가를 감동깊이 전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외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입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로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대학생들과 소년단원들은 삼가 인사로 드러내며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아뢰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건만 절세위인들의 환한 웃음이 태양의 촉박이 되어 뿜어져나온 듯 유난히도 밝은 햇빛이 상자의 곳곳에 파사르이 비쳐들어 날씨는 마치도 봄날같았다.

하지만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온몸을 후덕해 해주는 가운데만 심취되어서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의 존엄이 온 세상에 펼쳐진 자랑스런 력사화폭들이 뜨겁게 안겨와 주구나 힘겨 밟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는 모란봉구역 부속공터에서 살고있는 김홍기동무의 식구들을 만났다.

김홍기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보람찬 삶을 누려왔습니까, 저도 그 불속에서 성장하였습니까, 실명절을 맞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이 못 전디게 그리워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아보며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감동깊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수령을 모시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나라로, 대국으로 뿔을 뿌리고 있고 인민들도 강한 인민, 존엄 높은 인민으로 위용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서 조선인민군 관료 박호철동무의 심정도 열렬 하였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의를 드리고보니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속에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대에 대한 긍지와 함께 선군이 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특별히 새겨안게 됩니다.》

선군, 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헌병생애에 빛나는 성스러운 부름이다.

혁명의 총대위에 민족의 존엄과 자존을 안고 혁명의 승리와, 인생의 가장 큰 보람도 있다는 심오한 철리가 대원수들을 옹위하여 서있는 군

기수들을 형성한 군산들에서 새차게 빛났다고 있었다.

그 군산들을 보며 우리는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투쟁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어 민족민당의 마흔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다시금 열거 하였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태양의 성지를 무려 주신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어려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서성구역 정경2공소에서 사는 리명봉동무의 가정을 만났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리로 모시려는 우리 인민 모두의 절절한 소원을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풀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워 과학자로 자라난 저는 그 사명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며 이 땅위에 수령님들의 인위적인 사상을 빛나는 헌신로 꽃피워가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일성총독과 혁명영도자 김정은 원로가 일하고있는 안해인 박남실 동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붙잡고 충성다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지켜드리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후 대요사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개천구단 광명합업소 조합원장 리봉봉의 양철감동무는 비롯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격했더랬다.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우리는 뜨겁게 열거 하였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수령과 인민들사이의 감응과 열정을 온존케 하는 역사가 대추는 태양의 성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 영생을 지켜드리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후 대요사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착관하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날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만들어내가는 인민의 창원 총부, 총신한 심부름꾼이 될것이라고 력사적인 선언사에서 엄숙히 맹약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이다.

실명절에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마음껏 거닐며 사진도 찍고 유식리의 의자들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우리 인민 모두를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품이 있어 태양민족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는것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백두산열세위인들을 무려 더 다지는 충정의 명세가 높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를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열림을 앞두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리라!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이들만이 아니었다. 개천구단 광명합업소 조합원장 리봉봉의 양철감동무는 비롯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격했더랬다.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우리는 뜨겁게 열거 하였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수령과 인민들사이의 감응과 열정을 온존케 하는 역사가 대추는 태양의 성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 영생을 지켜드리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후 대요사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은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지는 심정의 명세가 천하를 진감시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날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도덕의 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승리의진전을 선도하는 기치로,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호**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인민군대의 앞길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가 승리의 포대로 빛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합을 꾀하려는 똑같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감에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하는것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인민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견해를 기초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준다는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심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리분석적기초를 마련해주신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원리와 내용들이 집대성되어있는 정명적지침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전투적지침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견해와 관점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것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밝힌 중요한 원리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것은 혁명적 건설을 받아 수행한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담당자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혁명적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

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결코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밝힌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적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제일로 중시하고 모든것을 인민의 비상과 중을 실현하는데 철저히 목숨까지 바쳐 인민대중의 지위를 높였음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 세상에 진지진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나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이인위원을 현정세의 지론으로, 최우영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우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빛내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크로도, 군대와 소년단원, 기념비적장소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고있으며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여 세워지고있다. 정치와 군사, 경제도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수호하고 꽃피우기 위한것으로 되고 인민적인 모든것이 가장 정의로움으로 되며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것은 인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빛나는 구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에게서 요구하여 혁명을 해나감에 대한 주체의 원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할때 대한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력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권위나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명사부

# 우 리 집

최한하게 일매신 로동자공전-김정숙 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에서 새집들이가 있었다.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나라의 희망찬 새해 2017년의 첫 새집들이, 이해에는 또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이 땅의 가정들과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넘쳐나기를 예고하는 풍요와도 같은 것이었다.



## 《오늘이 우리의 생일입니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원래 새집들이에는 그 기쁨만큼만 한 잔치상이 따르는것이 예상치 못한 대동강변의 로동자공전에서 집주인들도 깜짝 놀랄 연회상이 펼쳐졌다. 옛새집 새로 일매신 합숙을 크나큰 만족속에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 장같은 식사실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자고 하시니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기였다. 총격과 강동이 너무 커서 처녀들 모두가 이날을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난 생일날로 여겼다.

그러나 사실 합숙생처녀들 수백명중에 1월 13일이 생일날인 처녀는 둘뿐이었다. 19살 난 강동처녀 박원복과 22살 난 강동처녀 정현옥이었다.

갓가지 음식들이 차려진 연회상의 차림표를 소중히 안아보는 원복이의 얼굴은 영 눈물범벅이 되었다. 새집들이날에 생일날까지 걸친 처녀에게 동무들은 네 이름은 《원복》이 아니라 《쌍복》이, 《단복》이 그리고 떠돌게 축하해주었다.

남보다 소심해서 사람들앞에 나서기 주저하던 원옥이, 지난새 풍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날 그는 이렇게도 그 자리에 없었다. 발을 동중 구르며 황황 울던 그날 그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복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심정을 우리 원수님께서 어느새 다 헤아려보신듯 복 자기의 생일날에 새집들이 연회상을 마련해주셨었다. 아버지 자 자구만 생각했다. 어머신 어머니를 잃은 원옥이가 축담힐새라 속도 많이 떠온 아버지, 하지만 엄마사랑까지 대신해주던 그 아버지도 합숙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 생일상을 차려준적은 없었다.

울고웃으며 풀없이 노래를 부르는 화려한 치마치고미치광의 나이같은 처녀들을 바라보는 초급당위원장 김영미동무의 눈은 어느새 축복이 젖어들었다.

새집들이정사를 맞는 합숙생처녀들에게 한상 푸짐히 잘 먹이자와 미음쓰고있던 그였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수백명 합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애정을 다 함쳐도 떨치지 못할 연회상을 차려주시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문득 공장 초급당위원

기류들을 들고 설렘었다. 어딜 보나 무엇이든 다 좋고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퀴퀴하니라도 처녀들의 마음에 제일 흥분 된것은 경애였다. 거울없이야 무슨 처녀생활이라. 그런데 거울이 아니라 화려한 경애가 처녀들을 마주보고있었다. 경애를 화생품으로 딱 채우고 요렇게도 말라보고 조형제도 말라보며 연지곤지 켜며 여분이 없을 딸자식의 아침시간을 즐겁게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종 웃음을 지으시고 처녀들이 좋아 하겠다고, 정말 잘해주었다고 못내 기뻐 하시겠다고 한다. 그 경애에 한번 입매 일어나고싶을것 같지 않았다. 저절로 얼굴이 고와졌지만 같았다. 합숙생처녀들은 너무나 생각이 깊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다 아신거.)

로리실습실에 행동기가 있는것을 들고 넘겨주니 마음쓰신분도, 합숙생들이 리용하게 될 밥그릇, 국그릇, 고추버거 접시에 이르기까지 다만우에 다 돌아보시고 사소하게나마 느끼게 될 불편한 문제까지 먼저 헤아려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부모형제와 동무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저 저마다 손질회기로 사전을 찍으며 자기의 호실보다 나의 호실이 더 멋있는가 해서 이 방저방 초인종을 누르며 오구구 불려다니던 처녀들은 그만 지쳐버렸다. 7층짜리 로동자합숙 수직계 땅 어느것이나 쌍둥이처럼 꼭같았던것이다.

그러나 역시 처녀들은 처녀들이라 온근히 원심을 쓰는 호실이 있었다. 그곳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3층 6호실이었다.

지배인은 사연있는 그 호실의 두 방만은 특별히 꽤 현대미다 합숙생들의 이름을 찍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소 배탈을 얻어보셨던 침대와 앉아보셨던 침대는 김정숙동무와 박달주동무의 자리입니다.》

지난새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온 나라에 소문난 만리마기수들인 경애와 일주는 유명한 호실의 주인들이 되었다.

3층 6호실로 들어서신 합숙생들의 발걸음은 즐겁게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앉으셨던 침대를 잡고 또 앉으셨으며 그 자리에 앉아 사진도 찍고 지어는 누워보니까 지어는 합숙생활을 풀없이 맞고 보내는 일주의 심정은 한전으로 온근의 격정스러웠다. 저마다 귀중한 내 침대가 남아 있지나 않겠나 하는 위주심에 속이 바질새 집해있는데 어떤 양생공처녀 하나가 똥똥 자갈이 그에게 풀었다.

《인제 시기가냐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일주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양생공처녀는 조압기였다. 《나도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하고 이 침대의 주인이 되고싶어서요.》

《난 시집 안 가!》 하고 편히 북 내쉴기는 하였지만 일주의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게 아쉬움이 깃들었다.

(난 얼마나 좋겠니. 나보다 더 오래오래 이 합숙에서 살겠지.)

그 시각은 나라에 소문난 조사공처녀 김정환은 자기 침대앞에 다소곳이 서있었다. 그 침대에 우리 원수님께서 앉으시신것만 같았다.

《오, 네 만리마기수 자랑이구나! 하지만 못 잊을 것만 같아. 내가 좀 잡아주실것만 같아 가슴은 원없이 울렁거렸다.》

곧잘 우리 원수님께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신 그날 지난새 자신께서 만나주셨던 혁신자들에 대해서까지 물어주셨다고 하지 않나. 김정향, 박달주 두 처녀들이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너무도 기쁘시며 그들을 크게 내세워주고 평가를 잘해주시라고 거듭 이르시겠다고 한다.

정향은 아버지가 못내 그리워했다. 군사부부의 곁에서 희생된 아버지가.

## 우 리 의 집 은 당 의 품

저녁젓 갈지 않은 밤이었다. 7층까지 수직계의 호실에서는 하얗게 웃음이 풀아지고 노래가 울려퍼졌다. 새벽 새 집에 이사는 첫날밤을 좀 어슬렁고 서먹서먹한데가 있기미련이겠지만 그밤에 합숙생처녀들은 마치도 이 궁전에서 10년을 산듯 단연에 정들어버렸다.

김장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은 합숙수내 곁을 거닐며 로동자합숙의 분위기를 창가들을 호탕하게 둘러다보았다. 《저 동무들이 오늘 밤은 잠들을 잘껏 잘지 않구먼.》

지배인의 흥분한 목소리였다. 《이 궁전에 깃든 사연 다 알구나 하는지.》

초급당위원장이 혼자소리처럼 외쳤다. 《말을 듣는 김정환지배인의 귀전에선 지난새 6월의 그 잊지 못할 전화공포사가 생경히 메아리쳐왔다. 당중앙위원회 일꾼이 뜻밖에 처녀들을 걸어온 그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풍장을 다녀가신 다음날 이른 새벽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급 공장 로동자합숙문제 전화를 걸어오셨었고, 합숙의 실태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김정숙동무와 박달주동무의 합숙도 잘 꾸려주시고 대하여 코시하시겠다고 하시어 공장합숙건설을 자신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시종의 말씀을 주시었소. 지배인동무, 무슨?》

김장합숙동무의 두눈은 어느새 눈물로 화락 젖어들었다. 《꿈을 꿔왔던 그날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동무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떠나 부러워했것구먼만하고 경답게 말씀하시었다. 자기들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 보실듯 한 그 귀중한 어포에 저도 모르게 감동깊은 스스럼없이 말씀하셨었다.》

《부러워서 몇번이나 가보았습다. 인차 로동자합숙을 건설하겠습다.》

당의 은진속에 궁전같이 일매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온 나라 인민을 울리던 그때 누구보다 방직공장 처녀들을 부러워한것은 제사공장 처녀들이었다. 어떤 처녀들은 이땅을 알았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직공장에 갔을걸 하고 내심 후회까지 했다고 한다.

공장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은 팔을 걸어보고 나갔다. 우리 힘으로 지어오자고 장도려를 단단히 하고 나섰지만 합숙건설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제사공장의 합숙건설구상을 안고계셨던 것이다.

당에서 로동자합숙을 지어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공장에 퍼져갔다. 당의 크나큰 애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는 처녀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만리마는 우리가 아니라 군인건설자들이 하구나!》

원공을 앞둔 려명거리건설도 다 중지하

## 3층 6호실에서 있는 이야기

한집안에서도 부모는 딸자식의 방을 꾸려주는게 각별히 더 마음을 쓴다. 하나부터 열까지 꾸리구시 딸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다정한 정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었는지 누군가의 감탄 그대로 로동자합숙은 처녀들의 약원이었다.

합숙이 아직 건설단계에 있을 때부터 날마다 커가는 호기심에 뺨스김마다 인민군 군인들이 불이 났네 나제 건설을 다그치는 작업현장을 풍연히 들락날락하던 처녀들이 어서 합숙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사짐을 들고 와서는 입을 딱 벌렸다.

한공을 앞둔 합숙을 몰래 정찰해본 조사 4직장 조사공 김일옥, 시골 잘쓰기로 온 공장에 소문난 그가 궁구해서 풀러낸 동무들에게 감지르며 가카스로 한 마트는 《파우간... 숨이 딱 막혀!》였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한달전부터 이사짐을 꾸리며 때때로 처녀들은 호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감로 숨이 딱 막혔다. 어쩌면 도대체 좋은 것까지도 이렇게 꼭 마음에 들까. 어쩌면 치마치고미치광이 시 겹수 있게 옷장을 설계했겠나. 이마나, 내가 좋아하는 기라까지!...

들어보고 열어보고 만져보며 처녀들은 연순 탄성을 미쳐올렸다. 말로 누군가는 책 못이 자기 책들을 풍연히 들락날락하던 처녀들이 어서 합숙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사짐을 들고 와서는 입을 딱 벌렸다.

제국 외 오막실에서 로리실습실로 풀러온 한때는 밤베루리 지지고 부으며 흥겨울 모습을 그려지는데 저저마다 정



글 쓴사기자 조 홍 선  
사진 쓴사기자 한 광 명  
사진 쓴사기자 리 흥 성

# 온 나라에 펼쳐진 환희롭고 이채로운 설명절 풍경

## 아버지 지원 수님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반세기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절심이고 의지입니다.》

한해치고도 가장 즐거운 명절 중의 하나인 설명절을 맞이해 보내고 있는 이 밤의 모든 가정들의 모습을 그려보노라니 문득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처럼 올해 설명절을 거느 게 되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평양중화원 원아들이 가슴을 띠며 한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설명절을 피는 아이들, 우리 이제 여기에 파사로운 어머니를 안겨 맞고

평양 중등 학교에서

보낸 그들의 행복넘친 하루를 펼쳐보았다.

**설명절 아침에**

설명절 아침 식당으로 들어서 는 원아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것 은 식사실앞에 꽃테이프 장식한 식사자리였다.

설명절 아침 식당으로 들어서 는 원아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것 은 식사실앞에 꽃테이프 장식한 식사자리였다.

설명절 아침 식당으로 들어서 는 원아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것 은 식사실앞에 꽃테이프 장식한 식사자리였다.

친자들이며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힘껏 외치는 우리들의 응원소리, 그들속 에는 원아들을 위해 학원을 찾 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생들 들은 물론 원아들이머니들도 있 었다.

드디어 우리들의 승리로 1회전 이 끝나자 관중석에서 류대리 열성시예 응원하는 시당위원회 일꾼이 뛰어들어 환 선수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축하가 타격을 잘한다. 번개처럼 7점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학원배구 소조원들과 시당위원회일꾼인 홍철진, 장정수, 박동현 등도 불로 투어준 우리들이 2:0으로 번개처럼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육군은 이렇게 말했다.

《원아들이 응원하는 목소리 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배구경기할 때 그렇게 관조로 날 응원했지 언요.》

## 민속명절에 꽃피는 이야기

충정의 마음 꽃다발에 담아

설명절 이른 아침 경성군 북으로동자구 4인민반 전영희로인의 가정에서는 향기 그득한 꽃을 고르고꽃다발 꽃다발을 엮고있었다.

수심내어줄 경성에서공장에 모신 배두산설계사원들의 현지교사반, 현지말씀편찬을 찾아 정성껏 편지사업을 하는것이 가운으로 되어있는 전영희로인 가정에서는 부피두려운 쇠날은 책들이 있다.

이윽고 집을 나서는 전영희로인의 손에는 꽃다발이 정히 들려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두산설계사원들의 현지교사반, 현지말씀편찬을 찾아 정성껏 편지사업을 하는것이 가운으로 되어있는 전영희로인 가정에서는 부피두려운 쇠날은 책들이 있다.

6년과 30년

함께 《선생님, 설인사를 드립 니다.》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다녔다.

설명절을 비롯한 주요명절들과 선생님의 생일날이면 이김없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드려온 하는 충성진동수였다.

그가 일본이 넘은 전쟁의 와중에 태어난 그는 인애와 함께 스승의 아들같은 사랑을 받아 자라났던 설명절 저녁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날 충성진동수의 두손을 그들은 그의 귀중한 혁명정지들이었고 사회주의대가정의 헌신들이었다.

잠시후 영예군인의 집에 사는 영웅김동무가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이라》의 노래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어머니 당과 조국을 지키는 고마움의 송가 되어 행복의 향기따라 오레도록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아버지의 목소리

시당위원회일꾼들과 원아들이 서로 어울려 진행 하는 배구경기로 학원배구 육군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선수들이 서로 맞고부르는 소리와 열띤 응원소리가 온 체육관을 울려다녔다.

《하나 - 둘 -》하고 함창로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번개처럼 울

## 한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뜻깊은 설명절 아침 모란봉구역 전영희 56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영웅김동무의 집에 김정화동무를 비롯한 한 동반의 녀맹원들이 찾아 왔다.

《올해에도 건강하여 항상 기쁨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0년세월 한 영예군인을 위하여 지성을 다하여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뜻깊은 설명절 아침 모란봉구역 전영희 56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영웅김동무의 집에 김정화동무를 비롯한 한 동반의 녀맹원들이 찾아 왔다.

《올해에도 건강하여 항상 기쁨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0년세월 한 영예군인을 위하여 지성을 다하여

## 로동자들과 함께 보낸 뜻깊은 하루

한가정의 주부에게 있어서 설명절 아침은 한해의 명절치고 제일 바쁘면서도 즐거운 시각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딸의 일어나 정성들여 만든 명절음식이 시구들의 구미에 맞았는지 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특색있는 설명식은 더 없겠는지...

설명절 아침 선교구역 폭죽 2동 7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인경동무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튀다문것이었다 이번 설명절음식은 단명명종인 집안식구가 아니라 10명용 여아비는 대식구를 위한것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명절을 이틀 앞둔 날 저녁이었다.

김인경동무가 반딧불이 홀로 앉아 있는데는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문이 벌럭 벌럭 열리며 딸 수항이가 뛰어들어 왔다.

《어머니, 아버지가 숙보에 낫

꺼질줄 모르는 불빛

은 하루 기쁨으로 들끓던 학원의 저녁은 고요했다. 슬한 아버지, 모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어머니, 상흔들을 맞이하느라 백년도 더 애달렸을 호실문도 꼭 닫고서 열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 원수님 다녀가신 2층 1호실앞에 이르러 막을이교양원

## 동림군편의봉사관리소에서

대한 이야기로 모아졌다.

소장 김경애동무의 발언에 이어 직원들은 단위로 민속놀이 경기가 시작되었다.

제일 이목을 끄는것은 율놀이 경기였다.

율가락이 먼저들 때마다 리저는 한성도 흥겨웠지만 서로 잡고 잡히우는 과정에 누가 이겼는지 도무지 경기승패를 가늠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더

대중운동의 봉사관리소에서

대한 이야기로 모아졌다.

소장 김경애동무의 발언에 이어 직원들은 단위로 민속놀이 경기가 시작되었다.

제일 이목을 끄는것은 율놀이 경기였다.

율가락이 먼저들 때마다 리저는 한성도 흥겨웠지만 서로 잡고 잡히우는 과정에 누가 이겼는지 도무지 경기승패를 가늠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더

## 새로운 천연건강식품 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공업현장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놓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체계를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대대적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산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건강증진을 이바지할 새로운 천연건강식품이 개발되었다.

이전에 어느 한 단위의 연구사들이 개발한 천연건강식품-프록탄인양액은 세계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미생물적 약용당분으로 널리 알려진 과당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우리 나라에 흔한 천연식물에서 얻어내어 그 약리작용의 효과를 훨씬 높 이면서 식품안전성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기능성당성 식품이다.

일찍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식생활에서 약용당분의 리용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 독자의 원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마군산림경영소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여러가지 수훈이 좋은 나무모형생장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해가고있다.

산림부주관부의 장기적인 양보장에서 더 많은 나무모형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작전하고 지휘해나가는 이곳 임원들의 사업기풍에서 나타날림살이의 주인 임원분들을 엿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이양로장의 아리개유수에 가본 동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나무모 들에 물을 주는 자연호흡식관수계 계를 붙수었다. 이 관수제도가 오늘날 같이 온을 내기까지는 사안이 없다.

지난해에 산림경영소에서는

## 산림복구전투의 믿음직한 병기장으로

천마군산림경영소에서

당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절약은 곧 애국의 실천이다, 절이나 연유를 쓰지 않고도 물을 분무할 수 있게 하자, 지혜의 이 확고한 결심을 모두가 지지해나갔다.

더욱이 산림경영소에서 최근 분무식관수장치와 관수장치로 모은 물을 전할 조건에서 불로 장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게 되었다. 특히 아리개유수의 자연호흡식관수계를 완성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사만도 많은 전기와 연유를 소비하여 하회된다

## 대중운동의 전장

대중운동의 전장

은성군 풍서협동농장 3대 혁명붉은기 제3작업반에서 3대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당세포리협동과 작업반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기 위한 사업에 열심있게 임하고있다.

로동당원들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적수출로 더욱 풍부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작업반원들모두가 농업생산에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지역자재의 정성을 높여 말뚝하여 작업반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심일기 위한 조직사업을 믿음없이 하고있다.

로동당원들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적수출로 더욱 풍부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